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기도의 시간을 나누어보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8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1) - 감사와 찬양의 기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7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 곁에서 선한 목자로 인도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운 여름날씨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수요일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폭염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일터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코로나19 이후 다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예배 대표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2) -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아시고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좋은 기회가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3) -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름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하나 되고,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각종 전도행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장년부가 각각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들과 국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4)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가 권하노니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전서 2:1-2)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분단된 현실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을 소망하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료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서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현실 속에서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그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이 북한 땅에도 전해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통일의 그날까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 주시고,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 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위에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대표기도문 2025년 7월 넷째주 (5) - 마무리와 축복의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7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8월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과 이번 달 동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8월에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을 일주일 내내 간직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더욱 깊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사랑의교회 주일 설교 말씀] (<https://www.sarang.org/tv/sermon.asp?sflag=sunposi>)을 통해 더 많은 영적 양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